

독자들의 질문을 받습니다. 불법을 수행하시는 중에 의문이 생기거나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서신이나 팩스 또는 인터넷으로 보내 주십시오. 조계종 한마음선원의 대행스님께 여쭙어 응답해 드립니다. 삶의 고뇌에 대해서도 상담해 드립니다. <글책임: 편집자> ●보낼곳: 우 110-734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87 안국빌딩 6층 현대불교신문사 '길을 묻는 이에게' 담당자 앞 ●인터넷: www.hanmaum.org 또는 한마음 선원 ●FAX: (031)470-3116



대행스님

## 길을 묻는 이에게

제 685호 현대불교  
2008년 6월 25일(음력 5월 22일) 수요일 / 불기 2552년  
법공양 페이지

25

# 어떠한 일이 있어도 바깥으로는 절대 믿지 마세요!

(지난 호에 이어서)

요새 그런 것 잘 보시죠? 그런 것도 다 마음, 마음, 마음입니다. 여러분의 마음이 다스릴 수 있다면 내면세계 그 의식들의 마음들도 전부 한마음으로 지배인을 따라 옵니다. 여러분은 실험을 안 해 보셨으니까 모르지만 저는 어려서부터 실험해 보았기 때문에 잘 압니다. 부처님의 뜻이 어떤 것인지 부처님의 곱수가 어떤 것인지를 알아야 합니다. 역대의 조사들, 천백역화신들, 일체제불이 여러분이 원하는 대로 응해 주시면서 한 찰나에 드시고 한 찰나에 나신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은 모르실 겁니다. 그러나 오늘부터라도 알도록 해야 합니다.

여러분이 내 집에 전화를 놔야 전화를 받기도 하고 전화를 하기도 하지, 내 집에 전화를 놓지 않았는데 어떻게 전화를 받고 전화를 하셨습니까? 여러분, 여러분 마음속에 그 보배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그 보배에 의해서 내가 수억겁을 거쳐 온 사실을 알게 될 것이며 미래가, 바로 정신세계가 내 마음속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이 아실 겁니다. 그럼으로써 우리는 차 지나간 뒤에 차를 쫓아 가려고 애를 쓰는 그런 어리석은 사람은 되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서 타고 다닐 겁니다. 자가용이 있는 사람은 편하지만 버스 타는 사람은 차를 놓치기도 하고 타기도 하고, 이렇게 애를 쓰다 보면 얼마나 고통스러울 것인지 고거 하나로만 비유해 봐도 여러분이 아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날까지 추운 겨울 춥다고 해 본 일도 없고 더운 겨울 덥다고 해 본 일도 없습니다. 사계절도 사계절 나름입니다. 여름이라고 고정되게 항상 장마가 들어서 사람을 해치고 가는 것만도 아니고, 그런 장마도 없습니다. 괜찮았다가도 그렇게 될 수도 있고 그렇게 되었다가도 그렇게 안될 수도 있습니다. 또는 여름이 아주 무덥기도 하고 덜 덥기도 하고, 겨울이 덜 추울 수도 있고 더 추울 수도 있고, 고정되지 않다는 얘기입니다. 모두가 고정되지 않습니다. 북극 남극이 여러분의 입과 직장과 똑같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항상 여러분이 잡수시죠? 잡수고 그 잡수신 게 그냥 있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잡수고도 그거를 붙들어 놓고는 그냥 애를 쓰고 있는 때가 많아요. 그냥 놔뒀으면 소화가 돼서 그냥 나갈 텐데 말입니다. 그래서 돈 벌기보다 돈 쓰기가 더 어렵고, 어떠한 것이 사는 건지 그 맛을 모르다 보면 살기가 극히 어렵다는 얘깁니다. 부처님께서 "내 형상을 해 놓고 빌고 거기다가 갖다 놓고 시

주름 하고 그러는 것이 공덕이 크게 될 것이니라." 하셨습니까? "너희들의 마음을 깨쳐서, 너희들의 물리가 터져서 슬기롭고 지혜롭게 살아가라. 유이 세계 무의 세계가, 정신세계와 물질세계가 바로 너희들 마음속에 들어 있느니라. 너희들은 마음, 마음, 마음을 깨달아야 한다." 하고 가르치셨죠. 마음병을 고쳐 주시려고 49년을 설하셨습니다. 마음병을 고쳐 주려고 한 사람이 있어도, 거지가 앉아 있어도 설하셨습니다. 이 허공에 사람만 생명이 있는 것이 아니라 저런 나무 한 그루, 이파리 하나가 다 생명입니다.

그런데 중생 아닌 것이 어디 있겠으며 부처 아닌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중생 속에서 부처가 나왔고 부처 속에서 중생이 나왔겠지요. 여러분, 바깥에서 기복으로만 나가는 것을 지금 불교라고 생각하고 그렇게 위패를 모셔 놓고 빌고 있습니다. 자식이든지 형제든지 부모든지 다, 죽으면 위패에다가 붙여서 그냥 꺾꽂이 놓죠? 그런 것부터 좀 개선하면 어떻겠습니까?

지금 세상에, 이렇게 빠르게 돌아가는 세상에, 아니 잡수는 것도 그냥 있지 않은 세상에, 가르치는 사람도 그렇고 배우는 사람도 그렇고 좀 깨고 깨어야 됩니다. 옛날에도 그랬지만요. 지금 말하고 금방 돌아가고 금방 돌아가고, 걸어왔는데 발 자취가 하나도 없고, 가도 간 것이 없고... 또 부산에서 서울로 서울에서 부산으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하다 보면 시발과 종점이 어디 따로 있었습니까? 이게 즉, 끝난 데 없는 한마음으로서 불바퀴 돌아가듯 한다 이겁니다. 그러나 추척분하게 생각해서 음식물이나 놓고 빌고 절하는 것이 불교가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깨치고 마음이 폭 넓고 지혜로우며 물리가 터지게끔 자기가 채찍질을 하면서 이렇게 나아가실 수 있다면 바로, 앉는 것도 선이요 서는 것도 선이요 눕는 것도 선이요 먹는 것도 참선이요, 참선 아닌 것이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요다음에 만날 때는 서로 질문과 토론을 할 수 있는 그런 계기를 만들어 봅시다. 인연에 따라서 또 만날는지 모르니까요. 인연이라는 것이 그렇게 수가 없으니 인연이라는 말은 해서 될 합니까? '한마음' 그러면 됐지요. 하하하... 안 그렇습니까? (대중 박수) 아니, 세상에 인연이라는 말을 어떻게 감히 할 수 있습니까? 만나면 인연이요 말하면 인연이요, 그저 아버지 만나면 자식이 되고 또 자식 만나면 아버지가 되고, 부인 만나면 남편이 되고, 온통 그렇게 바뀌어지는데 어떤 사람 만났을 때 내가 나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래서 부처님이지요. 이름이 없는 게 부처



그림 · 최주현

예요. 부처님이라고 하는 것은 부처가 아니고 부처님이 아닌 것이 부처님입니다. 어떤 거 할 때 내가 했다고 할 수 없는 게 부처님이라는 뜻으로 여러분한테 설해 주신 겁니다.

그러나 부처님께서 "아! 죽는 것이 사는 거냐, 사는 것이 사는 거냐?" 하고 물으셨대요. 여러분한테 그렇게 물으셨다면 어떻게 대답하실 겁니까, 네? 대답 안 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가 한 발 한 발 걸고 있는 게 몸뚱이로 보서는 죽으러 가는 길이지요. 마음은 영원한 거지만, 영원한 그 주장자가 없으면 도로 환생을 할 수도 없지요. 이골어갈 수도 없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발 한 발 지금 죽으러 가는데 말입니다. 죽어야 또 새로 탄생을 하죠. 그죠? 이치를 보면, 그런데 살아 있으면서 죽으리라 이겁니다. 하하하... 몸뚱이를 살려 두고 마음이 죽으라 이거예요. 마음이 죽어서 죽은 세상에 가면 전체를 알게 돼요. 그러면 보이지 않는 데서 눈 뜨고 보는 것보다도 더 세밀하게 볼 수 있는 겁니다. 요만한 구멍을 조그맣게 뚫어 놓고 안에서 보면 바깥이 내다보이는데 바깥에서 그 안을 들여다보려면 하나도 안 보입니다.

그러나 이 심안의 도리가 여러분에게 얼마나 보였고 얼마나 귀중한 공부인데 그렇게 흐지부지하게 생각하곤 바깥으로만 살려 달라고 합니까? 글썽, 얼마나 모자람니까? 내가 내 생각을 해도 그래요. 여러분이 나 아님이 없습니다. 나도 모자람은 사람이나니까요. 하하하... 생각을 해 보세요.

금방 했다가 금방 그냥 없어지고 없어지고 하는데, 자꾸 헛바퀴 돌아가듯 하는데 거기에 왜 걸립니까? 풀이 비었습니까, 걸리게? (대중 웃음)

또 여러분이 살다가 돌아가실 때 말입니다. 집이 여러분을 따라갈지, 금은보화가 따라갈지, 몸뚱이가 따라갈지, 형제나 자식, 부인, 아니면 남편이 따라갈지? 모두 화장터까지밖에 안 가 줘요. 그리고 보물을 방에서 내다보지도 않아요. 또 집은 대문 밖에만 나섰다면 내다보지 않는다고요. 우리 삶 속에서 이러한 사실을 스스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거기로부터 나오고, 거기서 알고 있는 무상한 그 세상이 그렇게 돼 있는 거니 그걸 좇아서 우리가 좀더 연구하고 실천에 옮길 수 있어야 그것이 바로 문화 문명을 꽃 피우게 하는 것이요, 세계를 조화롭게 해서 평화로움을 가져오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전에도 내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죠. '구이팔아, 너는 알겠지, 너는 알겠지.' 그리고 뭐라고 뭐라고 그랬습니다. 하하하... 그랬는데 오늘 이렇게 마산에 처음 와서 여러분을 만나 빌고 보니... 뭐, 저는 외국을 가도 그렇지만 항상 돌아다니고 생각하고 핵심을 이렇게 일러 주고 또 배우고 이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외국 사람들 도요, 자기 핵심을 붙여넣어 줘서 이걸 알게 하니까 "내 마음 깊은 속에 생산처가 있군요." 하고 깨닫는 거예요. 그래 가지고 공부를 하기 시작하는데 여간 열심히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공

부한 사람들한테 우리가 배워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먼저 해서 그쪽에 줘야 올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줘야겠지요? 우리가 등양의 조그마한 계란 노른자위로서 핵심적인 문제를, 정신적인 미래에 어떠한 것을 가져올 그 보물 자체를 '바로 이런 것이 보물이다' 하고 줘야 할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남한테 얻어만 먹고 살고 남의 뒤만 따라가고 이렇게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여러분, 질문 있으시면 질문하시겠습니까? 나는 지금 급니까? 건동건동해 나갔습니까. 그러니까 건동건동한 데에서 단 하나 풀이라도 자기 것으로 하세요. 건동건동했지만 아주 우리에게 밀접한 인간 마음의 도리가 있습니다. 자식이 나가서 안 들어온다, 자식이 나가서 나쁜 일을 한다, 자식들을 잃어버렸다 등 모두, 이것은 일체 만법에도 해당됩니다. 그런 것들을 말로만 "너는 왜 나가서 자고 안 들어왔니? 왜 공부 안 하느냐? 너는 빌어먹기밖에 더하겠느냐. 배울 시기에 못 배웠으니 너는 만날 노동이나 해야지." 이라고 그냥 야단법석들을 하는데 나는 말로 해서 된다고는 생각 안 합니다. 여러분, 이심전심이라는 도리를 아십니까? 이월치월이라는 말도 아시죠?

그리고 전구는 저렇게 많지만 스위치는 어디 한 군데에 있을 겁니다. 여기 안에 들어오면 스위치가 두 개 켜져, 세 개 켜져 아주 이렇게 다양하

26면으로 계속

## 범음·범패 수강생 모집

교육과정

### 1. 49재 및 천도재 의식(6개월 과정)

- 천수바라 • 사다라니바라
- 도량계 • 다계작법

※ 49재 및 천도재의식 후 정안의식 강의(포함)  
※ 매주 수요일 15시(수시모집)

### 2. 2009년 윤5월 대비 생전 예수재 의식

※ 개강일 : 7월 16일 부터(매주 수요일)

준비물

녹음기, 필기도구

◆ 녹화, 촬영 절대 금지.

## 송강 범음·범패 전문강원

• 원장 : 오송강(중요무형문화재 준 보유자)  
경기도 안성시 죽산면 죽산리 5 미륵당

011-258-0314

## 한국불교여래종 입종 안내

사찰등록 및 여래종에 입종하여  
여래의 사도(스승)로서 포교 및 전도를  
함께할 종도·문도를 환영합니다.

### 한국불교 여래종 총무원

### ▶ 행자(남,여) 모집

불교교학 연구 및 수행을 통하여 포교 및  
전도의 뜻을 둔 초심자를 모집합니다.

### 한국불교 여래종 총본산 대략사사

전화 043)731-2261 / 043)731-6454  
팩스 043)731-6453

충북 옥천군 동이면 우산리 산기  
(경부고속도로 금강휴게소 강 건너)

## 불교 전통의식 수강생모집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에서는 불교의식의 중요함을 인식하여 각사암에서 꼭 필요한 의식을 여법하게 할 수 있도록 신입생을 모집하게 되었습니다. 전통의식에 관심 있으신 분들의 많은 동참 바랍니다.

교육과정 ▶ 1년(서울,경기 의식기준)

1. 사물다루는법 : 도량석, 조석예불, 각단예불, 각형(불공), 시식
2. 천도의식 : 49재, 시련, 대령, 관육, 신중작법, 상단관공,시식
3. 각종바라작법 (꼭 필요한 의식만을 집중적으로 교육합니다.)
4. 대상 : 승속 관계 없이 재가불자 수강 가능
5. 일시 : 매주 화요일 오후 2시 - 6시까지 (경우에 따라 요일변경)
6. 장소 :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설법전
7. 수업료 : 매월 10만원
8. 접수연락처 : 054)762-5888, 011-819-7464  
팩스 054)762-5889

### 한국불교태고종 경북 동부교구 중무원

경북 경주시 강동면 단구리 1278-9번지 2층

## 입종 안내 대한선불 조계종

총무원장 영곡 효주  
종회의장 법달 원정  
교육원장 효타 원공  
사정원장 무착 효산  
포교원장 무원 도일  
호법국장 무타 대한

### 각 지역구 중무원장 입종을 환영합니다

대한선불 조계종은 선을 생활화하는 중단으로써 불기 2552년 5월 17일 창종 하였습니다. 대승적 불교를 지향하며 이 땅에 불교도 건설을 함께하실 스님들을 기다립니다.

■ 교육원  
부산광역시 금정구 금사동 324-4번지 효타암  
전화 051)524-9406 / 010-7121-9406

■ 총무원  
경주시 내남면 망성리 753-1번지 무진암  
전화 054)744-0181 / 010-3178-1223